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불을 내려 주소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왕상 18:30)

오늘, 제 6차 성찬식

일시: 9월 3일(오늘),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70주년 기념 감사예배



2023년 9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충현교회 본당

1부 감사예배

사회: 한규삼 담임목사
설교: 권순웅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부 축하행사

전체성도 단체 사진 촬영
이벤트 및 행운권 추첨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역사자료 전시회

장소: 본당 1층(갈릴리홀 앞)

『충현 디지털 역사관』 온라인 시범 서비스

70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2023년 10월말 정식 오픈 이전에 수집된 사진과 자료들의 일부를 활용하여 시범 오픈합니다. 기록물을 통해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년 9월 1일(금) 오픈

관람하시는 방법: 교회 홈페이지 접속후 "디지털 역사관" 선택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대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발광하며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주년 행사가 진행되는 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관람 안내

1. 7시부터 음악회가 시작되므로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리허설 관계로 6시 이후 입장 가능하고 당일 금요집회는 없음)
2. 음악회는 2시간 동안 중간 휴식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공연관람 에티켓: 촬영 및 녹음 자제, 휴대폰 비행기 모드 전환 바람)
3. 본당에는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4. 음악회 팸플렛은 본당로비에서 1,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팸플렛에는 작곡가 소개, 곡 해설, 연주 순서, 전곡 독일어 가사 번역, 연주자 소개 등이 포함됨)
5. 축하 꽃다발은 보관장소에 맡겨 두었다가 음악회 종료 후 증정 부탁드립니다.
6. 인근 교구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라며, 종직자들은 제2교육관 주차장을 이용바랍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음악회 종료 후 즉시 출차)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ELIJAH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야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2023.9.8.금 오후 7시

장소: 충현교회 본당



지휘
박영민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테너
국윤종

소프라노
김샤론

메조소프라노
임은경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나요?

(누가복음 1:1-4)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하는 다급함이 느껴지는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외형적 특징은 ‘서문’의 존재입니다. 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누가복음의 실질적 특징은 헬라인의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당시 상당한 교육을 받았던 의사(골 4:14)였기에, 누가복음에는 의학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 제별로 기록된 마태복음에 비하여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 이유도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이라 불리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어떠한 근거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라는 질문과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으며, 왜 기록하고자 하는지를 서문에서 밝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기에 우리도 말씀의 일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2절)” 본문에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표현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 ‘천국일꾼 양성’은 순서로는 두 번째 목표이지만, 교회의 7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표입니다. 1963년에 제정된 이래 무려 60년간 우리 교회의 목표였으며,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주요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일꾼은 원어로 ‘휘뻘레페스(ὕψιπρέτης)’, 즉 아랫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며,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보냈던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본문에는 휘뻘레페스 앞에 ‘말씀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면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권위와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말씀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의 품위와 쓰임새가 달라지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일꾼은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고자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행 18:5)” 바울은 고린도로 선교를 떠나며, 부득이 동역자들과 떨어져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바울을 붙잡으니 그의 사역도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14)” 성경은 달라진 바울의 사역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말씀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생한 전달자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할 때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푹 빠져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씀의 일꾼은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긴 사람입니다.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말씀의 일꾼의 특징은 생생한 전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1-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원어의 표현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의 경험에 자신의 경험까지

더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바에 우리가 경험한 바를 더하여 다음세대에 전하게 되면 더욱 풍성한 유산, 매력 있는 전통, 그리고 생생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의 목적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아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가 실망하여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걷기 시작하셨지만, 제자였던 그들은 그 분이 예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던 시절, 전교인 수양회의 강사로 필라델피아에 계신 동료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수양회 장소로 운전해 가며 교회와 신학에 대하여 깊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번쩍번쩍했습니다. 강사님과 대화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과속한 사실은커녕 경찰이 따라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다가 온 경찰에게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들은 목사인데, 교회와 성경 얘기에 너무 깊게 몰두하다 보니 속도감을 잃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과속 티켓도 발부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는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몰두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목격자이자 말씀의 일꾼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들은 사람으로서 다시금 전달자가 되는 것이 말씀의 일꾼의 목적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그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행 11:24)” 선한 영향력의 결정적인 부분은 ‘주께 많은 사람이 더해짐’입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이 더하여지면 자칫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4절)”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게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는 삶,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경험의 확신이 충만한 삶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일꾼이 되는 길을 깨달으며, 그러한 말씀의 일꾼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같이 꿈꾸며 이루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What Kind of Servant Should We Be?

(Luke 1:1-4)

Rev. Kyu Sam Han

Unlike Matthew which was recor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ews, or Mark from which the urgency of presenting Jesus is felt, the external characteristic of Luke is the presence of the 'exordium'. The substantial feature of Luke which can be examined through this is that it is the Gospel written from a Greek perspective. Since Luke was a Greek and a well-educated physician (Col 4:14), medical terms were used a lot in the Gospel of Luke, which was written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in comparison to the Gospel of Matthew which was written according to themes. The reason that there is the exordium was to organize it more logically. Because Luke who was called a Gentile by the contemporary Jews did not meet Jesus in person, he could probably face to the question 'On what ground did you write the gospel?' The reason was that he was converted by the Apostle Paul and worked with him, but the Apostle Paul also had met Jesus who was resurrected, not Jesus who was working in ministries. That's why Luke reveals in the prologue how he could write the gospel, and why he tried to write it. Because even the one who did not meet Jesus in person could testify to Jesus with assurance as much as those who witnessed Jesus, we also can have hope for the ministers of the word.

The ministers of the word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ave delivered them to us, (v 2)" The expression which I want to share in the text is 'the ministers of the word'. 'The nurturing of the workers of the Heavenly Kingdom' among the five goals of our church is the second goal but is the oldest goal of the seventy-year history of our church. It was the goal of our church for as many as 60 years since it was enacted in 1963, which is, I am confident, the important reason why our church has been blessed. The minister written in the text is 'hypēretēs' (ὑπηρέτης) by the original language, which has the meaning of an underling. This is the expression that frequently appears in the Bible, and especially a word referring to those who were sent to catch Jesus by the priests and Pharisees as their underlings, but here in the text, a modifier, 'word' is fixed before 'hypēretēs'. If you become a minister of the word, even though you are an underling, your practical authority and importance become greatly high. This is because if a person belongs to the word, the dignity and usage of the person becomes different, and is transformed into a useful one. A minister of the word is a person who is occupied with the word. To be occupied with the word, you must hold on to the word for a considerable period, be close to the word to understand it, and make efforts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In the meantime, we come to experience at a certain moment we are holding on to the word. "When Silas and Timothy arrived from Macedonia, Paul was occupied with the word, testifying to the Jews that the Christ was Jesus. (Acts 18:5)" Leaving for the missionary work in Corinth, Paul was forced to go alone, separated from his co-workers. Meanwhile, when Silas and Timothy got together with him, the Bible expresses Paul's changed appearance as 'to be occupied with the word'. When the word held Paul, his ministries became different.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because we have concluded this: that one has died for all, therefore all have died; (2Cor 5:14)" The Bible records Paul's changed ministry as 'the love of God compels us.' I hope you and I will be occupied with the word, and become the ministers of the word whom the love of God compels us to.

The vivid deliverer

When the word holds on to and is with us, we come to experience that the word is sweeter than the honeycomb. Then, we come to love the word, are completely indulged, and stay in the word. The minister of the word is the person whose time of staying in the word is long. The characteristic of the minister of the word who responds to the word with alacrity is to become a vivid deliverer.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 narrativ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ave delivered them to us, (Luke 1:1-2)" The expression of the original language,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just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eye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from the beginning' reveals that in addition to the experiences of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e delivers his own experiences vividly. If we deliver what we have experienced to the next generation in addition to what the seniors of belief passed down to us, we can pass down a more abundant legacy, an attractive tradition, and a vivid history.

The purpose of the minister of the word

In Luke 24 was written the story of two disciples who were traveling to Emmaus. On the morning of the day when Jesus was resurrected, two disappointed disciples who were in Jerusalem were talking on the way back to their hometown Emmaus. Resurrected Jesus came close to them and began to walk with them, but those who had been his disciples did not know the person was Jesus. Moreover, even though Jesus interpreted the Scriptures to them, they did not recognize Jesus. When I was ministering in LA, I came to invite a colleague pastor who was in Philadelphia as a lecturer for the retreat of whole church members. While I was driving the lecturer pastor to the place of retreat, sharing a deep conversation with him about the church and theology, suddenly something flashed from behind. I was too absorbed in talking with the lecturer to realize I drove overspeed or know even the fact that the police was following us. The lecturer pastor said to the police officer who came to us that we were pastors and engaged in talking about the church and the Bible too much, so we lost the sense of speed. We were really sorry. Listening to what he said, the police officer didn't issue a speeding ticket, and just left a saying, "Don't drive quickly from now on." I could experience that we could not realize what was happening around us when we were completely preoccupied with something. The disciples whose eyes were opened when Jesus went into a house with them and broke bread returned to Jerusalem and delivered the story of Jesus they had experienced. It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person who has become both a witness and the minister of the word.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Rom 10:17)" It is the purpose of the minister of the word for those who heard to become the deliverer again.

The life that has a good influence

We should live the lives of believers who have good influences. If so, how can we have a good influence on others? The person who has a good influence is the one who has assurance within oneself and a good one. "for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Acts 11:24)" A decisive part of a good influence is '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If 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me, I would be likely to fall into self-righteousness. "that you may have certainty concerning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v 4)" Theophilus was not a person who heard of Jesus for the first time. It is also a good influence to give clearer assurance to the person who knows about Jesus. I hope our lives and faith will give assurance to all those around us, and I bless you and your children. The life that has assurance, especially the life full of confidence in experiences about what the word allowed to us and what the word fulfilled has the strength that gives decisive assurance to the lives of others. Let's dream and accomplish together in the Lord that our church will be full of the ministers of the word, who hope to become the ministers of the word and realize the way of becoming the ministers of the word.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ll these things will be fulfilled within the Lord.



에바다부 여름수련회

농인들은 귀가 들리지 않을 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를 낼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싫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은 평소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통성기도에도 이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8월 14~15일 충현기도원에서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모인 수련회를 통하여 약기 소리가 목소리보다 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안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온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충현교회 에바다부와 속초더함교회가 함께하는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마쳤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믿음생활 중에서도 우리 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기도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 목사님과 최만석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로 농인들을 축복해주셔서 정말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농인 성도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희정(에바다부, 수련회 조장)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농인 어르신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초더함교회 종은숙 전도사님의 특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첫날 밤 부흥회 가운데 진행된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신경성 일자목으로 활동이 힘들었는데 체력적인 부분까지 채워주셔서 수련회를 잘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송우리(에바다부, 수련회 조장)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에 모든 에바다부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기도회는 우리 안에 담겨 있던 마음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고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외침에 시간에 하나님은 뜨겁고 벅찬 기쁨과 회복,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반응했던 그 시간에 속초더함교회 농인 성도님들도 함께해서 더 의미 있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많은 봉사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식당봉사로 함께하여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예배를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수(에바다부, 수련회 식당스텝)



에바다부 교사와 성도들이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수련회 스텝으로 참여할 수 있어 더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농인 분들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최근 봉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고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에서 교사들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농인 분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권예진(청년1부, 수련회 찬양스텝)



캄보디아 1팀(중등부) 선교후기

- 캄보디아 몬돌끼리, 8월 7일(월) ~ 8월 12일(토) -



선교를 하러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처음 선교지로 가기 전에는 선교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고, 긴장도 많이 되었다. 선교지에 도착을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캄보디아로 선교를 오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다. 그 다음 날, 드디어 첫 번째로 전도를 하러 갔다.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일차에는 먼저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 전도를 하러 갔다. 나는 그곳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맡게 되었고, 친구와 선배님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주었다. 또, 그 이외에도 림보/축구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그 이후엔 축호전도를 가게 되었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선물을 주었다.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할 것 같았는데, 모두 잘 받아주셔서 기분도 좋고, 재밌었다. 이제 선교를 시작한지 2일 차에는 가장 먼저 축호전도를 했다. 너무 더웠지만 1일차 보단 날씨가 좋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전도를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지인과 아이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준비과정에서 교회 친구, 선배님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고 서로 더 가까워졌던 것 같다. 이후 행사를 진행할 땐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반응을 잘해줘서 고맙웠다.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하이 파이브도 했는데, 아이들이 행복해보여서 나도 기뻐고, 뿌듯했다. 또한 전도가 모두 끝난 이후엔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고, 다음에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를 짧은 시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와서 보람찼다. 그리고 선교를 통하여서 나도 많이 배웠고 깨달음을 받아서 좋았던 것 같고, 교회 사람들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았다. 나중에도 꼭 다시 선교를 오고 싶고, 선교를 아직 가보지 못한 친구들도 선교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1학년 이혜윤

캄보디아 선교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모른 채 비행기를 탄다는 것 하나로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다. 선교 사역을 할 때까지 선교가 와 닿지 않았다. 수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첫 번째 사역은 몬돌끼리 학교 사역이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위십을 하면서 캄보디아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보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졌다. 그래서 힘든 마음은 들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게 되었고 축호전도 때도 더웠지만 여러 집에서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주면서 정말로 마음이 뭉클했다. 하나님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목요일에는 여호수아 아카데미에서 성경학교를 했다. 신기하게도 전날에 학교에서 만나고 축호 전도로 만났던 아이들과 어른들을 다시 보니 반가웠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햇빛이 쨍쨍한 날씨로 너무 힘들었지만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니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참고 견디며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캄보디아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나는 선교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와 중등부 회장으로 남는 기간 동안 중등부를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잘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길을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선교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담대히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신 목사님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중등부 학생들을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학년 권예송



고등부 태국 단기선교 소감문

- 태국 치앙마이, 8월 7일(월) ~ 8월 12일(토) -



어릴때부터 가고싶던 선교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가게 되었다. 처음엔 나에게 선교란 외국에 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며 나의 생각이 많이 바뀐것 같다. 우리는 화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엔 내가 외운 언어를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고 긴장도 많이 했다. 그러나 태국 시민분들께서 우리의 전도를 잘 받아주시고,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잘 읽어 주셔서 많이 감동 받았다. 노방전도를 하고 우리는 장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였다. 장 선교사님의 사역 간증을 듣고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수요일에는 뽕뽕 초등학교와 대학교회에 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초등학교 친구들과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녁에 간 야시장 전도에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학교회를 섬기시는 나나 폰 목사님의 말씀은 이전의 나를 돌아보게 했다. 나는 무조건 많은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의 어린양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전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수요일 밤에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나는 국경이라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용관 선교사님께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노방전도를 하고 황금 삼각지에 배를 타러 갔다. 우리는 배를 타고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라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나라였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를 안하는 척하며 기도를 했다. 참 마음이 아팠다. 라오스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 되길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배타는 곳 옆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거기에서는 거절도 많이하셨지만 책자를 많이 읽어보셨다. 다 읽으시고 우리에게 읽었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감동받았다. 그분이 읽으신 내용을 믿게 되시길 기도 해야겠다. 금요일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시장과 치앙마이 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시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엘'이라는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영접 기도까지 하였다. 나는 그분에게 영접기도를 해드렸을 때 웬지모를 뭉클함을 느꼈고 눈물이 나왔다. 사실 나는 태국에 와서 내가 영접기도를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용기가 생겼다. 그 이후로 나는 치앙마이 역에 가서 한분에게 더 영접기도를 해드렸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기뻐하면서 들으셨고 스스로 영접기도도 하셨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자신도 더욱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 선교를 시작하기전에 선교를 마치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마치고나니까 이번 선교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과 5박6일동안 함께 해주신 한용관 선교사님, 목사님, 은숙 팀장님, 명훈쌤, 은미쌤, 하원쌤 그리고 태국 1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훈련부터 선교까지 모든 일에 함께 하여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아멘.

김시은 1학년 1반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소개

F. Mendelssohn , *Oratorio <Elijah> Opus.70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은 우리에게 '한여름 밤의 꿈',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교향곡 '종교개혁', '마단조 바이올린협주곡' 등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이다. 그는 바흐의 <마태수난곡> 등 숨겨진 보석과 같은 작품들을 발굴하여 연주한 지휘자이자 작곡가, 오르가니스트이자 교육자였다.

그의 <엘리아>는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바흐의 수난곡을 합쳐 놓은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첫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이 성공을 거두자 영국 버밍엄 음악축제의 위촉을 받아 구약성경의 선지자, 엘리아의 이야기를 주제로 1846년에 작곡되었다. 초연무대에서 8곡의 앵콜곡을 더 연주했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곡은 바로크 시대의 헨델의 <메시아>, 고전주의 시대의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3대 오라토리오로 불리우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널리 연주되고 있다.

오라토리오 <엘리아>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의 위협을 막기 위해 시돈 땅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가 들어 온 바알신으로 인하여 북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자 이에 엘리아가 나타나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언의 말씀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처음 시작 부분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후 비로소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시작되는 것이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서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등장하는 매우 큰 소리의 합창은 아름답고 명료한 멜로디가 아닌 반음계적 하행으로 이루어진 선율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런 탄식과 절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드라마틱한 전개를 펼친다.

전 곡은 44곡(연주 악보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1-20), 2부(21-44)로 구성된다.

1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아합 왕에게 엘리아가 가뭄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누가 참 신인가를 가려내는 갈멜산의 불의 대결, 그리고 엘리아의 기도 후 오랜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웅장한 합창으로 끝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부에서는 소프라노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엘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피하며 낙심한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호렘산으로 이끄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는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리고 엘리아는 하늘에서 내려 온 불수레와 불말들이 홀연히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전 곡을 통하여 작곡가 멘델스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의인의 고난 받음에 한없이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용된 가사는 열왕기 상하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요엘, 신명기, 호세아, 이사야, 시편, 마태복음 등 모두 신구약 성경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였는데 멘델스존 특유의 섬세하고 철저함으로 인한 가사와 음악의 완벽한 일치, 유려한 선율과 아름다운 화성, 자연 현상들의 극적 묘사가 돋보이는 표제 음악적 오케스트레이션, 작곡가의 깊은 신앙심,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천사들의 중창, 깊은 위로를 전하는 독창곡, 그리고 감격스러운 합창곡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주는 교회음악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연주시간 약 120분)

* 오라토리오 (Oratorio)

오라토리오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소(Oratorium)"를 뜻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오페라와 비교하여 설명되어 지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극음악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오페라가 무대장치와 배역에 맞는 분장과 의상을 갖추고 연기와 함께 연주하는 반면, 오라토리오에는 분장과 연기가 없이 음악만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페라는 주로 사랑, 복수, 죽음 같은 세속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오라토리오에는 주로 성경에 입각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더와이즈
회복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기간: 9월 14일 ~ 11월 2일 매주 목요일 7주 과정
시간: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대상: 교회학교 학부모 / 예비 엄마 / 55세 이상 마더들
회비: 40,000원(교재 포함)
신청기간: 9월 3일(주일) ~ 9월 10일(주일) 8일간
야외모임: 4주차 모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아래 링크 및 주간충현 참고)
문의: 박은영 집사(010-9252-3483)



동서울노회 제104회 정기노회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 가. 각종 고시청원(목사, 장로, 전도사)
- 나. 강도사 인허청원 및 고시청원
- 다. 기타청원(신학계속추천청원, 각종 이명청원 등)
2. 제출처 및 기간: 충현교회 사무국(담당자 내선401번), 9월 3일(오늘)까지

안수 집사회 31대 회장 선거

일 시: 9월 24일(주일) 12:10 장 소: 집사회 사무실

안수 집사회 회장후보 등록

기 간: 8월 20일(주일)~9월 3일(주일)

9월 정기 당회

일 시: 9월 3일(오늘) 찬양예배 후

충현동산 복구 완공 감사예배

일 시: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충현동산 '충현 심터'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09	이예진	청년1부	
2	1513	김준석	청년2부	김영실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03	김혜선	기본과정	
2	1504	이하진	초등부	
3	1505	이예나	초등부	
4	1514	정윤지	기본과정	
5	1515	전경수	기본과정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498	최경실	기본과정	이성섭
2	1499	박의영	기본과정	이석재
3	1506	우지현	기본과정	심혜련
4	1508	WILL WEBSTER	기본과정	하운식
5	1511	권담건	기본과정	유외숙

결혼

1. 고흥섭 군(고상선 서리집사·함명순 권사의 아들, 8교구, 브릿지 공동체)과 박보미 양(박금덕 타교성도, 허경희 타교성도의 딸, 청년 2부) / 9월 9일(토) 12:00 충현교회 갈릴리홀

별세

1. 문익환 타교집사(문성미 집사의 부친, 11교구) / 8월 26일 별세, 8월 29일 장례
2. 고인석 씨(고현경 성도의 부친·이명진 성도의 장인, 6교구) / 8월 30일 별세, 9월 1일 장례
3. 장영환 은퇴집사(김재순 은퇴권사의 남편·장은석 집사의 부친·고진희 집사의 시부, 7교구, 장정운 집사의 부친·정순규 안수집사의 장인, 12교구) / 8월 31일 별세, 9월 2일 장례

예배 담당(9/6~9/10)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9/6	수요 I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 10:22-30) 위안복 목사	강성은	최영은
9/8	금요집회	‘이웃과 함께 하는 음악회’		
9/10	주일 I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눅 10:30-37)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백봉선
	주일 II		이성환	이상석
	주일 III		김주한	이창희
설립70주년 기념예배	주일찬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골 1:18-23) 권순웅 목사	한규삼	김성윤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9/4~9/10)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4 (월)	윤준식/주영선	왕상 1:38-53	5교구
5 (화)	한규삼/박원화	왕상 2:1-12	전교인
6 (수)	신경철/박광용	왕상 2:13-25	전교인
7 (목)	윤성복/조용국	왕상 2:26-35	9교구
8 (금)	박동진/김광일	왕상 2:26-35	2교구
9 (토)	강성은/강성은	왕상 3:1-15	전교인
10 (주)	김승래/김승래	왕상 3:16-28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이기영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7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신광철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전도위원 충현동산이사장 담회서기 소망부장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이성섭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9교구장 행정위원 인사위원 기도원부장 중보기도부장

조종민 이상복 지규성 김영주 최민석
봉사위원 교구위원장 선교위원장 전도위원 합월루아전양대장

김명성 이창희 백봉선 박재현 임광신
차량안내부장 충현복지재단이사장 재정위원장 행정위원 예배위원장

이흥기 송한천 조운준 최현규 남용승
감사위원장 5교구장 세움위원장 인사위원 인사위원

김영환 변창대 허만선 안연식 현준봉
전도위원장 담회부서기 찬양위원장 10교구장 봉사위원장

양효민 박원화 이상배 박명근 김종훈
행정위원장 성례부장 기획위원장 8교구장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전성욱 박건일 배종락 김철남
성경통독부장 아멘찬양대장 건축위원장 건축위원장

김희동 홍금성 강태영 장기락 홍순길
3교구장 교육위원장 외선부장 찬양위원장 2교구장

정인욱 남중호 윤순규 김상열 이경환
기획위원 차세대위원장 1교구장 임마누엘찬양대장 6교구장

이양선 박성철 김열환 김세종 한홍연
7교구장 11교구장 예배부장 선교위원 헌금부장

최규옥 최승민 이석재 송문식 문영규
예배위원 제2교육훈련부장 평생대학원장 안내부장 12교구장

김충식 신현욱 임병익 박노익
전도위원 실로암대장 사랑부장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강성은 김주한 이성환 권혁근
1교구 선교위원장 11교구 12교구 7교구

윤성복 박동진 문진호 정석훈 김유석
9교구 2교구 3교구 8교구 예바다부

김승래 전영재 박영환 위안복 윤준식
브릿지 10교구 6교구 4교구 5교구

임대영 신경철 임진실 김승래 배진현
고등부 초등부 사랑부 신혼가정부 휴직

박성덕 권순동 박요셉 이다현
청년2부 청년1부 청년3부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주은숙 이수경 홍명주 유현정
5교구 6교구 평생대학원 9교구 유년부

조기숙 여정광
7교구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최준호
외선부 소망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이영미 박예령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 협력선교사

강기열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강정경 김산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